

자유교육의 전통과 하버드 교육

Tradition of Liberal Education and Harvard Education

차제순, 이재현
충남대학교

Jeh-Soon Cha(chajsn31@cnu.ac.kr), Jae-Hyun Lee(leejh@cnu.ac.kr)

요약

본고는 하버드의 교양교육이 자유교육으로서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 대학교육의 원형인 자유교육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개괄해 보았고, 자유교육의 전통에서 가장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버드 자유교육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의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더듬어 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들의 혼란은 대학교육을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으로 구분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학부교육은 학습자의 “liberalize”를 목표로,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은 전문적인 지식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대학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대학의 학사구조와 교양교육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중심어 : | 교양교육 | 자유교육 | 하버드교육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Harvard's general education in order to provide in sights into problem-solv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do this, this paper explored the historical tradition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 system of Harvard University.

1. The education of Harvard University is based on liberal education which is a model integrated knowledge and conduct. 2. The education System of Harvard University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undergraduate education characterized as 'liberalize' and graduate education as 'deliberalize'.

It is believed tha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Harvard University's education system can provide insights into the future reform of Koran higher education.

■ keyword : | General Education | Liberal Education | Harvard Education |

1. 서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이 대학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각 대학들의

안정적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대학교육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2012년도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8월 13일

수정일자 : 2014년 08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30일

교신저자 : 차제순, e-mail : chajsn31@cnu.ac.kr

학사구조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학교육은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으로 구분된다 [13]. 이 둘은 그 목적과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학부교육은 보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편견에서 벗어나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 배양과 학습자의 가치관 형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어 "liberalize"라는 특성이 있고, 대학원교육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어 오히려 "deliberalize"[1]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상 우리는 대학교육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교육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 특성화를 대학원교육을 학부교육으로 끌어온다든지 전문대학의 교육을 학부교육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은 단지 입학정원 감축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와 착각이 오늘날 대학교육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신의항은 우리의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기본철학에 관한 합의가 필요'[12]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학교육의 기본철학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대학교육을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하버드 학부교육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유교육의 전통과 역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하버드 학부교육의 학사구조와 교양교육의 면모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물론 하버드 학부교육의 기본철학이 교양교과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30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 하버드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에 대한 보고서'의 지침에 따라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지금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하버드 학부교육의 학사구조와 기본철학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양교육의 목표와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자유교육의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교육은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유교육은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세계 대학의 학부교육에서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자유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대해 어떠한 논란이 있었는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

1.1 플라톤의 자유교육: 이론적 지식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자유로운 이성의 힘에 의해 발달[2]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이성을 따를 줄 아는 자유인을 양성하는 교육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러한 자유교육은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들이 이끌었던 자유교육에서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최상의 덕 aretē이라 생각했던 '지적인 자유'를 말한다. 이사야 벌린 Isaiah Berlin에 따르면 전자는 방해받지 않는 조건으로서 소극적 또는 방법적 자유를 의미하고, 후자는 자유 그 자체, 즉 지성이 발달되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목적적 또는 적극적 자유를 말한다[3].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에서 말하는 '지적인 자유'는 바로 목적적 또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자유인은 지적인 자유의 지평, 즉 무지와 지식의 편협성 그리고 편견과 판단의 오류로부터 벗어난 심오한 이치로 구성된 지적 지평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2]이었다. 플라톤은 이러한 자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를 <국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플라톤은 그리스 교육을 크게 청소년기 교육과 성인기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기 교육은 시가교육과 체육교육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영혼을 도야하는 품

성교육과 수학, 기하학, 입체기하학, 천문학, 선법연구로 편성된 지식교육 그리고 현장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년기 교육은 변증술, 리더로서의 실무교육과 ‘좋은 이데아’를 볼 줄 아는 통치자를 위한 교육이었다[4]. 여기서 이데아는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체를 말한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발휘하여 형상 *eidos* 또는 이데아 *idea*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2].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고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일’, 곧 ‘필로소피아’ *philosophia*였다. 플라톤의 필로소피아는 이성의 사변적 기능을 발달시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필로소피아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형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 변화하는 실제의 경험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학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사학을 배척[5]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플라톤은 수사학을 단순한 입놀림에 불과하다고 이를 경시하였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서 이성적 측면을 우위에 두었던 플라톤의 필로소피아는 의미의 명료성과 사고의 논리적 일관성이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파했던 소크라테스에서 비롯되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고대 그리스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그것은 오늘날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유럽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그로 인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서 이성적 측면을 중시한 반면에 감성적 측면은 필로소피아의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2 이소크라테스의 자유교육: 실천적 지식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플라톤의 교육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사변적 이성의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과 실천적 이성의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 이 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전자가 플라톤의 교육이라면 후자는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이다. 플라톤의 교육이 추구하는 지식의 내용이 본질에 대한 절대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 *epistēmē*라면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이 추구하는 지식은 상황에 따라 유용한 현실적인 지식, 즉 의견 *doxa*이었다. 플라톤의 필로소피아는 영원하고 불변한 실제,

즉 이데아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형상의 세계[5]를 다루고 있어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소크라테스의 필로소피아는 시의적절한 의견을 구성하는 지혜와 그 의견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6]을 키우는 수사학으로 그 기반이 감성적이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은 실제적으로 유용한 교육,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다시 말해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교육으로, 말(웅변술)과 생각(사고력)과 행동(윤리성과 공익 중시)을 합일시키는 전인교육이었다[5].

2. 로마의 자유교육: 이론과 실천의 통합

이와 같은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이론적인 삶보다는 실천적인 삶이 더 근본적이라 여겼던 로마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플라톤의 자유교육이 너무 이론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을 가했던 키케로 *Cicero*(106-43BC)였다. 그는 이성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 받았을 뿐 아니라 실천적 삶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리스의 이론 지향성 문화와 로마의 실천지향성 문화를 하나로 통합[7]했다. 그는 <웅변가에 대하여 *De Oratore*>에서 “웅변(실천)없는 학문(이론)도, 학문없는 웅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장 완전한 것은 이 둘이 결혼한 상태, 곧 웅변가이다”[7]라고 말하면서 이론적 능력과 실천적 능력을 함께 지닌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학식있는 웅변가’[8]를 제시하고 있다. 학식있는 웅변가는 우선 다방면에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수사학 훈련을 통해 융합할 수 있어야 정의로운 시민사회에서 행동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키케로의 사상은 기원 후 5세기에 쓰여진 마르티아누스 카펠라 *Martianus Capella*의 <학문과 웅변의 결혼 *De Nuptiis Philologiae et Mercurii*>[7]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되었다. 플라톤의 이성적 활동에 기반을 둔 이론적 지식과 감성을 중시했던 이소크라테스의 실천적 지식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결혼을 통해 서로 화해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 걸렸던 셈이다.

마르티아누스 카펠라의 <학문과 웅변의 결혼>에서 신부인 ‘학문 *Philologiae*’은 *love of logic* 또는 *love of*

letters, 곧 ‘논리의 사랑’ 또는 ‘문자의 사랑’을 상징한다 [7]. 그러므로 그녀는 이론적 지식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Mercurii는 웅변을 상징한다. 로마 신화에서 머큐리는 웅변가의 수호신이다[7]. 그래서 그는 실천적 지식의 추구를 상징한다. 따라서 천상의 신 머큐리와 지상의 필로로기예의 결혼은 하늘과 땅의 조화이고,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통합을 의미한다. 마침내 이 결혼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도하고 있던 고대 그리스의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주장하던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사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학문과 웅변의 결혼식>에서 신부인 학문 Philologiae의 들러리로 등장하는 7자유학에 septem artes liberales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개의 과목, 즉 3학에 해당하는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리고 4과에 해당하는 기하학, 대수학, 음악, 천문학으로 구성된 자유학에 또는 자유교양 Liberal Arts의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은 고대 그리스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로마 말기 마르티아누스 카펠라의 <학문과 웅변의 결혼>을 통해 전통적 자유교육의 교과목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3. 중세의 자유교육: 중세대학의 철학부

초기 중세의 대학은 2-3개의 학부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4개의 학부, 즉 기초학부로서 학예학부 그리고 상급학부로서 신학부, 교회법학부(법학부), 의학부로 구성되어 운영[9]되었다. 쾰른대학의 경우, 학생의 7할이 학예학부, 2할이 법학부, 1할이 신학부와 의학부에 속하여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들은 학예학부에 소속[10]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예학부의 학부장은 대학 전체의장이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교육과정을 이어 받아 성립된 자유학예 또는 자유교양은 5세기 이후 중세 교육의 기본이 되었고, 근대 이후에도 대학의 교양학부 혹은 철학부에서 그 전통이 훌륭히 계승되어 유럽대학을 일종의 교양공동체로서 발전시켰다[9].

7자유학예를 연구하고 교수하는 기초학부, 즉 학예학부를 마친 학생들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로 구성된 상급학부에 진학하여 전문분야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학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교양교육 중심

의 학부교육을 담당하는 과정이고, 상급학부는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교육에 해당하는 과정[9]이었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을 연마하는 기초학부에서의 학습과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연마하는 상급학부에서의 학습은 서로 깊이 연계[1]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계관계는 수사학의 연마를 통해 웅변가를 양성하려는 이소크라테스와 키케로의 교육을 떠올리게 한다. 이론적 지식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을 깊이 있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학습자가 습득한 전문적인 지식이 자신과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중세대학 교육의 면모를 볼 수 있다.

III. 하버드의 자유교육: 이론과 실천의 통합

1. 학사구조

“A Harvard education is a liberal education 하버드 교육은 자유교육이다.”[1] 이 말은 하버드 교육의 기본 철학을 설명하는 글의 첫 문장이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버드 교육’은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원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일반보편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학부교육을 말한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버드는 세계의 많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을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부교육은 문리대학부 Faculty of Arts and Sciences(FAS)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리대학부는 기초학문분야 중심의 학부대학 Harvard College과 응용학문분야 중심의 공학 및 응용과학대학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원교육은 문리과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이 담당하고 있으며 응용학문분야의 대학원교육은 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 그리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분야를 구분하는 학사구조는 각 단계와 분야별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

하게 구분하여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구조다. 다시 말해 하버드칼리지는 학문지향 교육중심의 교육기관이고 공학 및 응용과학대학은 직업지향 교육중심의 교육기관[13]으로 모두 문리대학부의 등지 안에서 학부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리대학부라는 하나의 등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버드 학부교육은 기초와 응용학문분야의 통합적 교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과 실천의 연계, 즉 지행합일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학사구조로 하버드의 학부교육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이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11].

2. 하버드 자유교육의 의미와 유용성: 기본철학

하버드의 학사구조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버드 교육은 자유로운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추구하는 자유교육이다. 그래서 하버드 교육은 학부교육을 마친 이후 학생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을 하버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이러한 종류의 학습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세련된 문명을 이룩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자유교육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인간세계 및 자연세계에 관한 그들의 자각을 증진시킨다. 자유교육은 학생들이 더 신중을 기하여 자신들의 믿음과 선택을 하며, 그들이 추정하는 것과 동기부여를 보다 더 자의식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 해결을 보다 창의적으로, 주변 세계를 보다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삶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에 대해 보다 더 개인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

하버드의 자유교육은 생활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세련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학습이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교육은 학생들의 삶에서 대두되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인지하며, 주변세계를 보다 깊이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버드 교육이 지식의 실천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자유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애초 하버드의 자유교육은 1949년 소위 'Red Book'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다. 하버드는 1978년 중핵교육 과정을 채택한 이후 30년간 운영했던 교육과정을 2007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현재 준비와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현대판 “학문과 웅변의 결혼”이라 볼 수 있다. 하버드 자유교육의 교과목은 학문분야별 강좌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교과목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서 대두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의 학습은 여러 학문분야의 지식과 다양한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론적 지식의 현실적 적용을 강조하는 학습모델이다.

자유교육은 사변적 이성의 발달과 실천적 이성의 발달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하버드의 학부교육은 이를 통합하고자 했던 이소크라테스와 키케로 그리고 마르티아누스 카펠라로 이어지는 자유교육의 전통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버드는 기본철학을 설명할 때, 하버드의 자유교육은 학생들의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서도 “자유교육은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를 하버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자유교육은 유용하다. 이 말은 자유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직업을 위한 훈련을 하거나 대학과정 이후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학생들이 친숙한 세계만이 중요하다는 추정을 돌보이게 하여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입시키는 것도 자유교육의 목적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교육의 목적은 추정을 뒤흔들어 놓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현상의 저변과 이면에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고,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키며 그들이 스스로 방향 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유교육은 가설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자기성찰을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역사적 계기와 문화의 형성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부딪힐 때 형성되는 소외감을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육이다.

이와 같이 하버드 자유교육은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지식의 편협함을 벗어나 사물과 현상의 이면과 저변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지식의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시의

적절한 의견을 구성하는 지혜와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즉 지식의 실천적 측면을 아울러 강조하는 말이다.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두 가지 유형의 삶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 유형 중 하나는 이론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론적 삶이고, 또 하나는 실천적 지식을 추구하는 실천적 삶이다. 실천적 삶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삶일 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의미에 따르는 삶이다[7].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포이에시스 poiesis라 하였고, 후자는 프락시스 praxis로 구분하였다. 포이에시스가 추구하는 지식은 테크네 technē로 공학적 지식을 말하며, 프락시스가 추구하는 지식은 선의 추구로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는 ‘프로네시스’ phronēsis였다. 프로네시스가 추구하는 삶은 실천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변적 이성의 역할이 아니라 가치문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실천적 이성의 역할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는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이 추구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7].

하버드가 말하는 자유교육의 유용성은 바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와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적 입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버드의 자유교육은 자유로운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공부한 모든 것은 대학 졸업 후 직면하게 될 삶 그리고 세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는 교양교육 General Education을 통해 이러한 자유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버드는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에서 이러한 지식의 실천적 측면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하버드 교양교육의 목표와 범주

하버드의 교양교육은 변화와 다문화의 혼재 그리고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21세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교육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 목표는 참여하여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육성과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

첫째, 교양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역할을 가르쳐 준비시킨다.

둘째, 교양교육은 예술, 사상 및 가치라는 전통의 소산이며 참여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셋째,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변화에 응전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

넷째, 교양교육은 말과 행동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윤리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다. 민주시민은 이렇게 선의 가치를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민주시민의 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프로네시스 또는 이소크라테스의 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버드의 교양교육은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교육모형이다.

이러한 4개의 교육목표가 반영된 교양교육의 교과목은 8개의 범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범주에 속한 한 학기 과정의 교과목을 졸업하기 전 각 범주에서 1개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각 범주에 속하는 교과목들은 일정한 맥락 속에서 많은 학문분야를 포괄하면서 이들 간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8개의 범주에 속하는 교과목들은 전공학과의 경계를 초월한 지식과 학문분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교과활동인 활동기반학습 activity based learning과도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활동기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현실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하버드는 이것이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하버드 교양교육의 범주와 그 조건을 살펴보자 [1]. 범주는 ① Aesthetic and Interpretive Understanding 심미적 및 해석적 이해, ② Culture and Belief 문화와 신앙, ③ Empirical Reasoning 경험적 추론, ④ Ethical Reasoning 윤리적 추론, ⑤ Science of Living

Systems 생명체계의 과학, ⑥ Science of the Physical Universe 물질세계의 과학, ⑦ Societies of the World 세계의 다양한 사회, ⑧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세계 속의 미국 등이며, 각 범주의 조건과 2014년 현재 운영중인 교과목[14]은 다음과 같다.

① 이론적 틀의 맥락에서 작품 분석을 가르치면서 강의실 밖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심미적 감응과 해석능력을 개발한다.(〈Poetry Without Borders〉 외 37개)

② 문화와 신앙의 전통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취향을 반영하여 문화적 쟁점과 연결해야 한다.(〈Performance, Tradition and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to Folklore and Mythology〉 외 38개)

③ 추론과 문제해결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이론적 도구를 가르치고 이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연결하여 실제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Making Sense: Language, Logic, and Communication〉 외 9개)

④ 윤리적 관념의 개념과 이론의 쟁점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윤리적 난제에 적용한다. 더불어 다양한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력 증진시켜야 한다.(〈Human Rights: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외 19개)

⑤ 생명체계와 관련된 핵심적 개념, 사실과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실험실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세계의 문제점들과 폭넓게 연계시켜야 한다.(〈The Toll of Infection: Understanding Disease in Scientific,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외 9개)

⑥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물질세계에 대한 개념, 사실과 이론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실험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현실세계의 문제점들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What is Life? From Quarks to Consciousness〉 외 16개)

⑦ 다양한 사회의 상호 연결성을 검증하고 가르치면서 각종 다양한 사회의 쟁점들과 연결해야 한다.(〈China〉 외 33개)

⑧ 미국의 각종 제도와 관행을 현대적·역사적 시각에서 검증하고 다른 나라의 각종 제도와 관행과의 연관

성을 설명하면서 각종 사회적 쟁점들과 연결해야 한다.(〈American Society and Public Policy〉 외 22개)

이와 같이 하버드 교양교육의 191개 교과목은 각 범주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지라도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추구하는 자유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하버드는 이들 강의에 대한 교수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강의 교재에 대해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와 교수들간 상호작용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1].

IV.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그리고 이의 ‘통합’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교육의 관점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 논란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최근의 자리에 있는 하버드 학부교육은 지식의 이론과 실천적 측면을 통합하는 자유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버드의 학부교육은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기관인 하버드 칼리지와 응용학문분야의 교육기관인 공학 및 응용과학대학으로 구성된 문리대학부에서 주관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학사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버드 교육은 자유교육이다’는 선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버드는 자유교육을 학부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대학에서 학부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야 할 학생들이 비판적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고능력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는 ‘자유교육은 유용하다’는 점도 강조하게 된다. 하버드 교양교육의 목표가 참여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점은 이러한 자유교육의 전통적 이념과 유용성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우리 대학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의 문제로 격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혼란의 원인은 신의 향이 언급했듯이 대학교육의 기본철학에 대한 깊이 있

는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학부교육의 초점을 자유교육에 들 것인지 대학원 교육처럼 전문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포함하여 우리는 고등교육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철학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의 부재는 극심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대학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대학교육의 기본철학은 교육의 목표, 학사구조, 교육과정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분명 대학을 위기로 몰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대학들이 외치고 있는 세계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교육의 전통과 하버드의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에게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초를 대학교육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교육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로 하버드 자유교양 교육의 구체적 교과목 운영 실태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운영실태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Harvard,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2007.
 [2] 조무남, *교육학론*, 서울: 학지사, 2006.
 [3] 이사야 벌린(박동천 역), *자유론*, 서울: 이카넷, 2006.
 [4] 김인곤, "플라톤 『국가』",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8호, 2004.
 [5] 김봉철, *이소크라테스*, 서울: 신서원, 2004.
 [6] 김현, "이소크라테스의 철학과 파이데이아에서의 의견", *서양고전학연구*, 제50호, 2013.
 [7] 조무남, *교육과 사상의 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2008.
 [8] 박영희, "키케로의 『웅변가론』에 나타난 교육이

론", *교육철학연구*, 제33권, 제4호, 2011.

[9] 이광주, *대학의 역사*, 광주: 살림, 2013.
 [10] H. 그룬트만(이광주 역), *중세대학의 기원*, 서울: 탐구당, 1977.
 [11] <https://college.harvard.edu/about>
 [12] 신의항, "한국 대학, '대학교육 기본철학' 합의 필요하다", *교수신문* 2007.11.12자 기사
 [13] 손동현,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양기초교육", *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1호, 2007.
 [14] <http://www.registrar.fas.harvard.edu/courses-exams/courses-instruction/general-education-1>

저 자 소 개

차 제 순(Jeh-Soon Cha)

정희원



- 1980년 2월 :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사)
- 1982년 8월 :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석사)
- 1993년 8월 :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문학박사)

• 1999년 11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독문학, 분석심리학, 서양사, 유럽정치

이 재 현(Jae-Hyun Lee)

정희원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
- 2007년 2월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석사)
- 2009년 2월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4년 2월 ~ 2012년 2월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 2012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대학교육, 비교정치, 환경정치